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성경: 로마서 12장 11-14절

Tag:

11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12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13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14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롬12:11-14)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열심히 하지 않으면 이루지 못한다.

나쁜 일은 훨씬 더 힘들다. 나쁜 일을 성공 시키려면 많은 사람들이 협력해야 하고 대단히 많이 애써야 하며 욕심이 아주 많아야 한다.

탈세를 하려면 엄청나게 머리를 많이 써야 한다. 몇곱절 열심히 해야 한다.

절세를 하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게으르면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내야 한다.

나쁜 일에는 나쁜 방법들이 사용된다. 생각도 나쁘고, 거짓말도 교묘하게 섞어 넣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며, 들키지 않으려고 대단히 잘 포장해 놓는다. 그러나 결국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실패하고 만다. (지금 북한이 그렇고, 베트남이 그렇고, 캄보디아가 그렇고, 소련이 그렇다. -다행히 중국은 수정 공산주의라 자유시장경제를 허용했기 때문에 훨씬 낫다.)

우리는 좋은 일에 열심을 내야 한다.

주를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한다.

무슨 일이든지 많은 시행착오가 있기 때문에 열심을 내야 한다.

한번 해 보면 대부분은 실패한다. 그러면 또 해야 한다. 그런데 그때 열심이 없으면 포기한다. 성공한 사람치고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실패가 감당할만한 실패가 되도록 시간과 안전을 마련하고 실험한다. 그러려면 또 비용과 노력이 발생한다. 좋은 일이라고 해서 힘겨웁지 않거나, 지루하지 않거나, 경쟁하지 않거나, 실수하지 않거나, 손해보지 않거나, 사기꾼이 없거나, 악랄한 사람이 없거나, 보기 싫은 사람이 없거나 하지 않는다. (나쁜 일에는 더 많다.)

그래서 열심을 내야 한다.

특별히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셨다. 주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주를 섬기는 첫 번째는 예배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왜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질을 높이며 그 질을 가늠할 수 있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이다. 예배의 순서 순서를 주의 깊게, 정성을 다하여, 구경하는 태도가 아닌, 함께 동참하여 드려야 한다.

두 번째는 일터에서 열심을 품고 일해야 한다. 일이란 항상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면 더 좋은 방법이 드러나고 더 잘 할 수 있게 된다.

일에는 방해요소가 항상 존재하기 마련이다. 일꾼은 방해요소를 재빨리 발견하고, 피해갈 수 있는지, 해소할 수 있는지, 새로운 기술이 있는지, 내가 할 수 있는지, 다른 사람에게 의뢰해야 하는지를 빨리 판단해야 한다. 그러려면 열심히 해야 한다.

방해 요소가 있는데도 무시한다든지, 그것 때문에 포기한다든지, 남탓을 한다든지, 정부 탓을 한다든지 하면 곤란하다. 거짓과는 싸우되 선한 싸움을 하려면 역시 열심을 내야 한다. 그러나 항상 내가 잘못할수도 있으니 조심하며 겸손해야 한다.

가장 조심하며 열심을 내야 하는 부분은 자신을 돌아보는 일이다. 자신을 돌아보는 일에는 항상 열심을 내야한다.

12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 쓰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즐겁게 지내라는 뜻이다.

또 그러다보면 환난이 오더라도 잘 이겨내고 참으면서 잘 지나가게 된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 구체적일수록 유익하다. 자신이 하는 현재의 일이 하나님 나라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상상하며 그려낼 수 있어야 한다. 미래의 소망 중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나의 모습이 오늘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즐거워진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그리면서 사는 것이 보람이 된다. 그러면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리고 그 소망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된다.

그 소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특히 자녀를 위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소망을 기도해야 한다.

13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 부분은 주보 칼럼에 게시된 것.

13절 말씀이 나에게 실현될 수 있으려면 우선 매우 건강해야 한다.

건강한 삶이란 잉여 산물을 만들어서 자신 스스로에게 여유와 유익을 주며, 또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다. 새해의 다짐이란 바로 그런 여력을 어떻게 비축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조금 더 지혜를 발휘한다면 예상되는 수고로움에 10% 정도를 더 추가해서 계획을 세운다. 내가 사는 이유가 그저 내 한 목숨 부지하고

내 몸 편하기 위해서라면 스스로 얼마나 초라해 보이겠는가? 그러나 내가 힘을 내서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애쓰고자 한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끌어당기는 효과를 낼 것이다.

정확하게는 10% 더 힘을 낸다는 것은 선택 사항이 아닌 필수 사항이다. 이것은 마치 자동차에 시동을 걸어놓고 악셀레이터를 밟는 것과 같다. 가속페달을 밟지 않으면 자동차에 시동을 거는 의미가 사라지고 만다. 그러니 힘을 내야 한다. 만약 힘이 없다면? 희생은 고사하고 심지어 자신을 위해서도 힘을 낼 수 없다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한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오직 하나님께만 진짜 지혜가 있고, 진짜 길을 계시해 주신다. 기도할 수는 있지 않는가?

14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14절 말씀은 어렵지만 아주 쉽다.

내가 저주하고 싶은 사람에 관한 말씀이다.

저주하고 싶은 정도의 사람이라면 나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는 자다. 스트레스 때문이라도 병이 생기지만, 그를 미워할 경우 병이 생길 가능성이 두배로 커진다.

그러므로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그를 하나님께 고발하고 하나님께서 벌하시기를 기도해야 한다.

그런데 그도 하나님의 자녀일지 모른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를 축복하면 좋다.

그러면 그가 그 복을 받고 나를 괴롭히지 않게 될 가능성이 있다.

만약 그가 그 복을 받지 못한다면 그 복은 나에게 부패량이 된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기도는 많은 힘이 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예비하신다.

(홍원장 이야기) 맞고소X, 화살이 되돌아가게 하소서.

<찬양예배>

제목 : 성경:

Tag: